

#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문 순 덕\*

## 차 례

1. 머리말
2. 제주방언의 현실
3.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4. 마무리

## 1. 머리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외국어(특히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제주방언 보존 방안에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이는 제주문화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서 제주방언이 선택된 것이다. 누구나 제주방언의 소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도 조성된 것 같다. 다만 제주방언이 먼저 논의된 것이 아니고 영어의 확장을 염려하면서 나온 것인데, 잘못하면 제주도에는 제주방언만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이 상위 언어로 인식할 수도 있다. 제주방언은 한국어의 하위언어이며 문법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15세기 언어 모습이 남아 있어서 국어사적 가치가 큰 것이다. 제주방언은 특이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고 독특하다고 해서 한국어와 다른 모습이 아니고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지만 <아래아 · >와 같은 음운이나 몇몇 어휘들이 사라져가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통어인 표준어를 제정했으며, 온 국민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강하다. 그러나 지역으로 내려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각 지역마다 상호의사소통 매개체인 방언이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공통어의 사용 세력보다 방언의 사용 세력이 약한 것이다. 방언은 동일한 방언권에서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방언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이 글은 “제주 사투리 보존은 가능한가” <1997. 12. 18. 제주문화포럼 목요토론회> 내용을 보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었고 표준어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표준어에 대한 우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지역 고유의 언어인 방언 사용이 소홀해졌다고 본다.

“사투리 쓰지 마시오”라는 말속에는 사투리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표준어와 차등으로 대우하는 언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투리 : 방언, 지역어라는 말의 순수국어이다.
- ② 지역어 : 어떤 특정 지역의 언어를 독립된 체계로 볼 때를 가리킨다.
- ③ 방언 : 다른 지역어와 비교·대조하는 경우(각 지방의 말)를 뜻한다.

국어학계에서는 ‘方言, 사투리, 지역어’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방언’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사투리/방언’이라 하면 그 자체를 천시하거나, 틀리거나, 잘못된, 아니면 무식한 사람의 언어쯤으로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 표준어는 한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방언은 교육어로서 자

격을 잃게 되었으며, 표준어에 비해서 각 지역의 방언은 사용 범위가 축소된 것뿐이다. 한 지역 내에서 상호의사소통 능력 등 문화의 공유 면에서 방언의 기능은 탁월하다.

## 2. 제주방언의 현실

표준어는 언어 정책상 특정 지역의 방언을 지정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말이어서 처음부터 언어 구조상 다른 방언보다 우월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언이 공통어인 표준어에 비해서 열등하고 나쁜 말씨가 아니라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긴 언어여서 표준어와 방언을 놓고 언어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인 서울 지역 말씨도 일종의 서울방언(표준어 규정 총칙 제1항 참조)인 셈이다. 따라서 표준어가 방언보다 품위 있고 우월한 말씨라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표준어 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방언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다. 방언 토박이화자들은 표준어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표준어 사용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언 사용을 꺼리기도 한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 지역 방언을 다른 지역 방언과 비교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자기 지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언 사용자끼리는 집단 유대감과 주체성의 표시로써 자기 지역 방언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제주도에 왔을 때 친구끼리 제주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표준어를 사용하면 문화의 차이를 느끼며 괜히 방언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고향을 떠나 있어도 의도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출신지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언

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 접촉이 드물었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방과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각 방언간 교섭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다른 지역 방언에 대해서도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방언을 이해하는 정도에 비해 제주방언을 알아듣기 힘든 방언으로 여기며, 제주지역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방언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제주방언을 실제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방언 토박이화자들은 표준어 습득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표준어 구사력이 뛰어난 수밖에 없는 언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제주방언 토박이화자들은 표준어 구사력은 물론 다른 방언 구사력도 뛰어나다.

제주방언은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 소수 인구의 이동과 접촉 인구의 한계, 소외 지역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방언 전파가(다른 지역으로) 거의 없으며 표준어 동화가 더디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방언에 대한 열등감의 한 예로 제주방언 토박이화자들은 다른 지역 사람과 이야기할 때 표준어 구사력이 뛰어나며 표준어 사용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 따라서 한 지역 방언의 사용 빈도, 언어의식 등은 그 지역의 문화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중매체로 표준어가 펍 효율적으로 보급되고 간접적으로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방언은 이런 매체 때문에 점점 사라지긴 하지만 표준어로 언어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방언 토박이화자들이 라디오, 텔레비전을 보고 들으면서 표준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제 언어생활은 표준어가 아니고 방언이다. 즉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언을 사용하는 토박이화자들에게는 표준어가 감정상으로 생경하여 거리감을 주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할 경우 화자 사이에 친밀감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동일 방언 사용자

끼리는 상호의사 소통력과 동질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언을 사용하는 부모와 표준어를 사용하는 자녀들은 서로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는 섬세한 감정 교환이 어려우며 어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방언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원형대로 보존되지 않고 표준어에 동화되면서 사용될 것이다. 방언 원형의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교육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방언의 굳어진 형태를 화석화하는 것도 있지만 언어 접촉에 따른 변이형도 보존의 대상이 된다.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어서 방언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며 방언의 존재 위기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위적인 소멸이 가속화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 때까지(빠르면 저학년) 표준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도시에서는 방언을 쓰면 촌스럽다며 시골 아이로 여기는 또래 아이들과 어른들의 영향 때문에 방언을 가르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촌스럽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방언의 세력이 유지될 것이다. 어린 아이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와 살면 제주방언은 잘 사용하는데 부모가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시골에서 전학 온 학생이 방언을 사용하면 '촌스럽다'며 왕따를 시킨다고 들었다. 이는 어른들이 방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무의식중에 아이들에게 전염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표준어와 방언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언어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는 비가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가시적인 경제 가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주방언과 접촉 기회가 적은 원인은 대중매체의 (방송 드라마, 영화 등) 영향도 있다. 방송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주방언 사용이 거의 없다. 가령 제주방언 대본이라고 해도 배우들이 제주방언을 잘 구사하지 못한다. 이는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 출신들은 배우기가 어렵고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는 낯설다는 어려움도 있다. 몇 년 전에 모 방송국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제주출신인데 제주방언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전국의 시청자들은 잘못된 제주방

언을 알게 될 위험이 있다. 영화 <이재수의 난>도 공간적 배경이 제주도여서 주인공 배우가 종결어미 정도(-이우다, -마씀)이지만 제주방언을 구사하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방언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은 이 지역 출신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며 자연스럽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어의 힘은 국력이나 지역의 발전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주 출신 작가들이 문학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지만 전국의 독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사 상징어나, 어미(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의 사용은 활발한 편이다.

### 3.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어떤 방언이 소멸되는 것은 전국, 세계적인 현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무형의 언어도 유산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는 채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방언을 원형대로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언의 소멸 원인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60~70대 이상 제주사람들의 대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CD로 제작해서 영상 자료로 보존한다.

② 제주방언에서 사라져 가는 발음(음성)을 자료화해서 정확한 발음법(입 모양 등)을 직접 보여주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 예를 들면 외국어 교육을 하듯이 제주방언을 정확하게 발음해 보기, 따라 해 보기 등 실제 음성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방송국에 비치된 자료 중에서 재편집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와 공

등으로 제작해서 자료화하고, 방언 보존이나 활용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4·3 증언 자료를 이용해서 방언 자료를 만들 수 있다.

④ 제주도에서는 “시, 군 사투리 경연 대회”(일반부)가 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투리 경연 대회”(다른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함)가 있다. 사투리 경연 대회를 하면 사투리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 사투리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투리 경연 대회시 대본의 내용이나 표기법을 유념해야 하는데 대본 작성자가 문법 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방언을 표현했는지가 중요하다.

⑤ 제주도에 있는 어떤 서예 단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주방언으로 작품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예가들이 제주방언 어휘나 표기법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는다면 방언의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따라서 출판작품에 대한 작가의 문법 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방언 표기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방언은 구어(口語)여서 말하고 듣는 데는 익숙해 있는데 직접 쓰거나 읽는 데는 낯설다. 제주방언 표기법 설정이 가능하나 아니냐를 떠나서 방언 역시 한국어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표준어를 사용할 때는 맞춤법에 따르는데, 방언을 표기할 때도 이 맞춤법에 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명사와 격조사,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 활용이 문제인데 이때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이 표준어와 동일하다.

- (가) {궂앙/ \*ᄃ랑} 몰라, 봐사 알주.(말로 해서는 모른다. 보아야 안다.)
- (나) 일이 잘 안 {뒹엇수다/ \*되엇쑤다}.(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 (다) {하르방/ \*할으방/ \*하루방} 어디 감서?(할아버지 어디 가고 있어?)

(가)에서 ‘궂다’(말하다)는 불규칙동사여서 ‘궂앙, 궂아서’로 활용하는데, 이는 표준어의 불규칙동사와 같다. 표준어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한

것을 그대로 방언에 적용하면 방언 표기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나)에서 '뉘다' (되다)로 적는 것은 제주방언은 단모음 '니'는 소리나지 않고 이중모음 '네'로 소리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엇-'은 제주방언형이며 '-었-'은 표준어형이다. 이는 통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는 '-쑤-'로 소리나더라도 '-수-'로 적는다. 몇 가지 원칙을 알면 제주방언을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표준어와 제주방언을 지나치게 구분하려는 의식 때문에 방언은 무조건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문법의식이 있는 것 같다.

(다)에서 '하르방'이 맞는 표기법인데 '할으방/하루방'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무엇을 쓰든지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문법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의 여섯 영역(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국어지식, 문학)을 배운다. 이 여섯 영역이 지속되면서 모국어 화자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문자와 구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이 한국어와 같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도 이런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언은 구술언어여서 말하거나 듣기 영역은 자연스러우나 쓰기와 읽기 영역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며 이때 방언 표기법이 문제가 된다.

⑥ 학교는 방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중요한 교육 기관이다. 교사에 따라서 제주문화 알아보기, 제주방언 알아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방언인 경우 방언 어휘 조사하기 정도이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라도, 경상도(1997년 당시)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자기 지역 언어로 수업을 하는데 교사나 학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교육청에서 교사, 학생에게 학교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또한 방언을 사용하면 교사나



학생이 어색하게 여기기도 한다. 이것은 제주방언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방언은 교양과 품위가 없다는 인식과 제주문화에 대한 열등감도 있기 때문인데 나이에 따라서 방언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⑦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방언의 표준어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방언인 '멍게'가 표준어인 '우렁쟁이'를 앞질러서 표준어로 등록된 것이 좋은 예이다. 방언 보급이 손쉬운 것은 방언으로 문학작품 쓰는 것이다. 방언 속에 묻힌 맛깔스런 어휘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일은 작가의 몫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학작품을 방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국의 독자를 겨냥한다면 어떻게 이해시킬까가 작가의 고민일 것이다. 제주방언은 특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작가의 모험이 필요하다. 제주사람을 독자로 한정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전 국민을 독자로 생각한다면 작품에서 제주방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작품과 독자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을까를 고려해야 한다.

⑧ 제주도는 관광지여서 관광업 종사자들의 힘이 절대적이다. 이들이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제주방언을 알려주면 언어의 오·남용은 또 하나의 언어 공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지에서 제주방언을 언어유희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교육이(제주방언 음운, 문법, 의미, 유래 등) 필요하다. 제주방언으로 일상회화 책자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러 방언 자료를 제주도에 있는 언론 매체에서 제주지역 토박이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면 제주방언은 보존될 것이다. 표준어를 바르게 알자는 홍보물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는데, 제주방언도 이렇게 하면 잘 활용될 수 있다.

⑨ 제주의 문화(민속, 민요, 설화 등)에는 제주방언이 잘 보존되어 있다. 민속자료를 채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주방언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⑩ 대학과 시·도가 연계해서 언어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담당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에서는 매년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과 행사로만 인식되고 있다. 대학에서 학술조사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두 학과에서는 학술조사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 원예, 농업, 가축, 어류, 식물 등 제주 관련 학과에서는 제주방언 관련 부분을 연구 조사할 때 제주방언의 모습대로 잘 기록해 주고, 학술조사와 연계해서 학술답사를 하는 것도 보존의 한 방법이다.

⑩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제주방언은 너무 독특해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편견일 수도 있다. 편견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특이성을 인정하는 제주도에서 제주방언을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다른 지역 방언을 같이 소개할 수도 있다.

방송매체를 이용한 방언 교육이 가능하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우리말 교육>처럼 제주방언도 가능하다. 교육 효과가 큰 대중매체(TV나 지방 신문 등)에서 고정(내 고장 언어 알기 등)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 방언을 소개한다면 온 국민의 상호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감상하고 존중할 줄 하는 능력(다양성)을 기를 수 있다. 지방 신문에 보면 외국어를 소개하는 고정란이 있는데 제주방언을 간단히 소개하는 고정란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언어 교육에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가 곁들인 놀이 형태의 방언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방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말 탐험, 말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학생과 교사 대상의 교육 자료(구체적인 영상과 음성)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제주방언 능력 신장 면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이 자료를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제주방언 사용과 보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방언 토박이화자들을 설득하느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현시점에서 제주방언의 존재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 저절로 배우게 되므로 그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제주방언 보존이 제주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예로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보존하는 방법은(여기서 보존이란 유형문화재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전수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조사나 마을지(마을마다 독자적인 책을 만든다)를 만들 때 그 마을에서 현재 사용하는 제주방언을 최대한 채록, 정리하는 것이다. 언어는 역사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언어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언어도 이미 보존할 가치가 있다.

마을조사시(학술조사나 마을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시) 체보자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주방언은 그냥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것을 채록하겠다고 하면, 뭐 기록할 가치가 있느냐며 반문한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제주방언의 현재 형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귀중한 <문헌자료>가 된다. 즉 시간이 지난 후 제주방언 '밥'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어떻게 발음했는지 알려면 이런 문헌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표준어 교육이 보편화되어서 제주방언 화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하는 수밖에 없다.

#### 4. 마무리

방언은 동일한 방언권내에서는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 방언 나름대로 체계화되고 규범화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쓰기, 읽기 등). 방언 교육의 대상은 넓게 잡아 토박이화자 전체가 되

겠지만 학교교육과 같이 체계성을 전제로 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과 방언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이다. 학생 이외에는 방송의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방언 교육에 대한 교육자들의 인식이다. 토박이화자이든 교사든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하위 언어이며 저급한 언어이며 품위 없는 언어라는 그릇된 언어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각각 별개의 언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위치이다. 다만 표준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방언 교육에 임해야 하며 왜 방언 보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정책은 크게 보면 한국어이고 작게는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자국어나 지역 방언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문화(언어)의 정체성 및 보존 방법은 힘들지만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노력이(변형을 최소화)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통신언어가 난무하면서 표준어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 나라의 국어나 지역의 국어라 할 수 있는 방언은 나름대로 문법 규칙이 있다. 실제 생활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법에 맞게 사용하려는 의식과 방법이 언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영태(1988), “공통어로 쓰일 수 있는 경남방언”, 『국어생활』 12, 국립국어연구원.  
 김윤경·김영서 역(2001), 언어전쟁, 한국문화사.  
 민광준(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일본의 노력”,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